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7년 8월

교육학(음악교육)석사학위논문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전공음악 출제
문항 분석: 2014-2017학년도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최 정 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전공음악 출제
문항 분석: 2014-2017학년도를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Tendency of Primary Questions of
Licensure Examination for Secondary School Teacher
in Music Major: Focusing on 2014-2017

2017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최 정 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전공음악 출제
문항 분석: 2014-2017학년도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박 재 연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최 정 이

최정이의 교육학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지현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정은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재연



2017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내용	2
3. 연구의 제한점	3
4. 선행연구의 고찰	4
II. 중등교사 임용시험	7
1. 시험제도 및 변천	7
2. 자격기준	9
3. 출제원칙 및 과목	13
4. 음악과 임용시험	19
1) 1차 전공음악	19
2) 2차 실기 평가	21

Ⅲ. 음악과 임용시험 1차 전공음악 문항 분석:

2014-2017학년도를 중심으로 27

1.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요소 27

2. 평가내용요소의 출제 경향 28

3. 전공 A 출제 경향 분석 32

4. 전공 B 출제 경향 분석 46

Ⅳ. 결론 및 제언 56

참고문헌 59

표 목 차

- <표 1> 임용시험 제도 변천
- <표 2> 정교사 자격기준
- <표 3> 경기도지역 임용시험 선발예정 및 응시인원 수
- <표 4> 광주지역 임용시험 선발예정 및 응시인원 수
- <표 5> 중등교사 임용시험 출제원칙
- <표 6> 2009~2013학년도 임용시험 시험 과목, 문항유형, 문항 수 등
- <표 7> 2014학년도 임용시험 1차 시험 과목, 문항유형, 문항 수 등
- <표 8> 2015학년도 임용시험 1차 시험 과목, 문항유형, 문항 수 등
- <표 9> 2016~2017학년도 임용시험 1차 시험 과목, 문항유형, 문항 수 등
- <표 10> 2017학년도 임용시험 1차 출제 범위 및 내용
- <표 11> 음악과 기본이수과목
- <표 12> 2013~2014학년도 경기도 지역 실기 평가
- <표 13> 2015학년도 경기도 지역 실기 평가
- <표 14> 2016~2017학년도 경기도 지역 실기 평가
- <표 15> 2016~2017학년도 광주 지역 실기 평가
- <표 16> 전공음악 평가내용요소의 4년간 출제 빈도: 전공 A
- <표 17> 전공음악 평가내용요소의 4년간 출제 빈도: 전공 B
- <표 18> 음악교육론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A)
- <표 19> 화성법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A)
- <표 20> 대위법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A)
- <표 21> 음악분석 및 형식론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A)
- <표 22> 서양음악사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A)
- <표 23> 국악개론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A)

- <표 24> 국악곡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A)
- <표 25> 국악실기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A)
- <표 26> 합창·합주지도법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A)
- <표 27> 국악사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A)
- <표 28> 장구반주법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A)
- <표 29> 피아노반주법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A)
- <표 30> 음악교육론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B)
- <표 31> 화성법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B)
- <표 32> 음악분석 및 형식론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B)
- <표 33> 서양음악사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B)
- <표 34> 국악개론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B)
- <표 35> 국악곡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B)
- <표 36> 국악실기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B)
- <표 37> 국악사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B)
- <표 38> 장구반주법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B)

ABSTRACT

Analysis on the Tendency of Primary Questions of Licensure Examination for Secondary School Teacher in Music Major: Focusing on 2014-2017

Choi, Jeongee
Advisor : Prof. Park, Jaeyeon, DMA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system of employment examination for secondary education teachers has been constantly improving to set higher-quality questions, in selecting qualified teachers for school education. Thus, the questions set for music majors in the first-session employment examination for secondary education teachers allow us to confirm the knowledge of the subject and practical skills of candidates, and it is estimated that there i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reas.

This study aims to inquire into question trends by analyzing the questions set for music majors in the first-session employment examination for secondary education teachers ranging from 2014 to 2017.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firstly, this study examined employment examinations for secondary education teachers of the period of 2009-2017, Secondly, based on the data, this study analyzed the questions set for music majors in the first-session employment

examination for secondary education teachers during the past 4 years from 2014 to 2017.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questions set for music majors in the first-session employment examination for secondary education teachers during 2014–2017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t was possible to know that the number of questions about subject education and subject content education has reduced and the distribution of marks for each question has increased. Secondly, as for the question trends of major A and major B, one question in both music education philosophy and educational process from music education theory has been set each year. The subjects included in subject content education which set one question each year correspond to harmonics, the Western music history, piano accompaniment technique, music analysis, formalism, introduction to traditional Korean music and traditional Korean music history.

The employment examination for secondary education teachers was revised in 2014; therefore, there are no systematic and clear analysis standards yet for analyzing the questions presented for music major. For this reason, diverse follow-up studies will be required in the future, and this study hopes to contribute to serving as a basic material for the students who prepare for the employment examination for secondary education teacher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임용시험)은 몇 차례의 제도적 변화를 통해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다. 이는 교육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는 것과 긴밀한 연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고 지향해야 할 방향을 교육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부, 2015). 이와 같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민주 시민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질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교육적 자질을 ‘음악’이라는 교과를 통해 충분히 배울 수 있는데, 이는 음악과 교육과정 목표에서 제시하고 있다. 즉 음악은 음악적 정서 함양 및 표현력 계발을 통해 자기 표현 능력을 신장하고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며, 문화의 다원적 가치 인식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 능력을 지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전인적 인간 육성에 이바지한다(교육부, 2015).

이러한 교육을 하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는 일이다. 학교 음악 교육은 음악 교과를 지도하는 교사의 자질과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교육을 수행하는 음악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함으로써 교사에 따라 음악 교육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홍인혜, 2015).

특히 음악 교사라면 우선 학생들에게 음악적으로 시범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음악적인 시범연주에는 노래, 반주, 지휘, 즉흥연주 등 여러 가지 음악 능력이 있다(민경훈 외, 2013).

이와 같이 중등교사 선발을 위한 임용시험제도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임용시험)은 1991년도에 2차시로 처음 시행되었고 2009학년도에 3차시로 개정되었다가 다시 2014학년도부터 2차시로 바뀌어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14~2017학년도 임용시험 1차 전공음악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연도별로 각 시·도 교육청마다 다르지만, 지원자는 해마다 거의 비슷한 수치이며 매해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임용시험의 출제문항을 분석하여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가 임용시험을 대비하는 후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길 기대해 본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2009학년도에서 2017학년도까지 임용시험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문헌 연구를 하고 이를 통해 2014~2017학년도 4년간 음악과 임용시험 1차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활용된 자료는 선행 논문자료와 국내학술지, 음악 교육 관련 서적, 각 시·도 교육청 공식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하여 발췌 및 수집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용시험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문헌 연구한다. 임용시험 응시 자격기준

을 알아보고, 임용시험 제도 변천 과정을 1991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세 시기로 나누어 분석한다.

둘째, 임용시험 1차와 2차의 출제과목 및 출제원칙에 대해 국가시험을 대행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웹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셋째, 2014학년도에서 2017학년도까지의 음악과 임용시험 1차 출제 경향을 분석한다. 분석기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요소를 기본으로 한다. 이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틀에 해당하지 않는 문항은 관련논문과 전공 도서를 연구하여 본 연구자만의 고유한 평가내용요소를 분석기준으로 추가한다.

넷째, 2차 시험을 분석하는데 있어 각 시·도 중 선발인원이 가장 적은 광주광역시지역과 가장 많은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음악 실기 평가를 중점으로 분석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2009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2014~2017학년도를 중점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9~2013학년도 임용시험은 3차시로 나뉘어 시행되었다. 1차와 2차가 필기시험이다. 2014학년도부터 임용시험제도가 2차시로 바뀌어, 1차는 동일하게 필기시험이며 2차에는 수업실연과 심층면접이 실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9~2017학년도까지 임용시험의 이론적 배경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출제 경향 분석은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요소를 토대로, 최근 새롭게 재편된 년도 즉 2014~2017학년도까지 4년간의 1차 시험만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교직적성 심층면접, 수업실연은 정확한 출제 기준이나 내용이 공식적으

로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연구의 제한점으로 둔다. 다만 실기시험은 응시자 수가 가장 적은 광주광역시지역과 응시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출제내용 및 범위에 관한 시험요강을 분석한다. 이에 수집된 자료는 교육청에서 발췌한 자료이다. 때문에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년도까지만 분석 영역에 포함한다.

4. 선행연구의 고찰

김재연(2010)은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임용시험 전공음악의 출제 문항을 분석 연구하였다. 그 중 국악 문항 분석을 중점으로 하였으며, 문항분석과 교과서 및 국악 도서간의 악곡 출처를 통해 국악의 출제경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 기준에 있어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학을 활용하였다. 출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연도별로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이 일관성 있게 출제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다음 출제문항이 단순지식을 묻는 것 보다 복합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이 많이 있음을 밝혀냈다. 영역 가운데 국악 이론영역이 출제 비중이 높았고 출제문항이 실제 현장의 수업과 연계되어 있는 문항이 늘어나고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악곡의 출처가 교과서뿐만 아니라 국악 관련 도서에서도 출처를 확인 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맞추어 문제점을 찾고 즉각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영미·최병옥(2013)은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출제 문항을 2009~2014학년도 를 중심으로 하여 5년간 임용시험 전공음악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기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음악과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요소에 따라 2009~2013학년도 임용시험 출제문항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본 이수과목 및 분야 간의 출제 비중의 문제를 논의로 두었으며 평가영역 및 평가요소별 간의 출제 비중의 차이가 크며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문항이 있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가 논의하고자 하는 점은 시험에서 특정

한 문항이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비중이 있어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것은 시험 응시자들이 특정한 내용에만 집중하여 지식이 한쪽으로만 기울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용시험의 발전 방향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기를 촉구하였다.

변미혜(2013)는 중등교사 음악과 임용시험의 실태 및 개선에 대해 연구하였다. 음악교육의 발전을 위해 임용시험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국악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임용시험에서 교과내용학에서 국악 분야와 연관된 내용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실기 능력 평가를 분석하여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음악교육을 하는데 있어 당시 시행 했던 실기 능력 평가로는 국악 교육을 지도하는 교사를 양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의 임용시험 제도에 있어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험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유정은(2015)은 2000년부터 2015년도까지의 음악과 임용시험 지필고사 출제 문항을 분석하였다. 음악교육론, 국악, 서양음악사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 기준에 있어 따로 영역을 나누지 않고 문항 자체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는 문항 자체가 세밀하게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영역을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분석기준을 새로 재편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되고 있었고 각 대상 별 자주 출제되는 문항이 있음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16년간의 임용시험 분석을 통하여 자주 출제되는 대상과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파악하였으며 본 연구가 앞으로 임용시험 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연구의 목적을 밝혔다.

박찬미(2015)는 자질 있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준수하여 임용시험을 출제해야하며 자질 있는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양성기관이 확립되어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을 바탕으로 임용시험 문항의 출제 문항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 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언급하였다. 또한 임용시험의 출제 문항과 중등교사 양성기관의 연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언급하며,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범대학교에 재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몰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보경(2015)은 2009~2015년도 음악과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출제문항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출제문항의 분석범위는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으로 나누어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20명에게 설문지를 돌려 임용시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에 의해 도출해낸 결론은 출제빈도가 국악이 제일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양음악, 음악교육론, 다문화 순으로 출제되었음을 분석하였고 각 영역별로 매년 출제되는 내용을 분석하였다. 설문지를 통해 최근 개정된 2014년도 임용시험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설문자들은 채점의 일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설문자들이 생각하는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 가운데 비중 있게 출제되어야 할 영역을 분석결과로 하였다.

박미현(2016)은 2012~2016년도 음악과 중등 임용시험을 대상으로 문항의 출제경향과 유형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문항분석의 기준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시한 출제 원칙과 음악 서적을 연구하여 분석기준을 연구자가 작성하였고 또한 앤더슨의 교육목표 분류학을 분석기준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과정과 서양음악 및 국악에서의 출제빈도가 높았으며 배점은 영역 수에 비해 통합영역에서의 배점의 합이 높은 것을 밝혀냈다. 또한 앤더슨의 교육목표 분류학에 따라 분석한 결과 교과서의 기본지식과 기본 및 상위개념의 관계에 대한 문항이 많이 출제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출제경향과 유형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임용시험 출제에 있어 질적 개선을 기대하고자 함을 밝혔다.

II. 중등교사 임용시험

1. 시험제도 및 변천

1) 시험제도

임용시험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매년 시행공고, 원서 교부·접수, 문답지 운성, 시험실시, 합격자 발표까지 관할하며, 1차 시험 출제 및 채점과 2차 시험 출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담당한다. 현재 임용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실시된다.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시험이 진행되며, 1차 시험은 전국 공통으로 출제되나 2차 시험은 각 시·도 교육청마다 시험유형이 다르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출제방향은 첫 번째,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수준 높은 양질의 문항을 출제해야하며 두 번째,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성이 있는 중등교사 임용 전형자료를 제공해야함을 제시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 이는 교육공무원법(개정 2016.1.27.), 교육 공무원 임용령(개정 2016.1.6.) 및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개정 2014.8.8)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2) 시험제도 변천

임용시험은 1991년 처음 시행되었다. 그 후 세 차례의 제도적 변화를 겪으며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첫 번째 1991년~ 2008년, 두 번째 2009년~ 2013년, 세 번째 2014년~2017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인 1991년~2008년도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어 시행

되었다. 1차 시험은 교육학과 전공 필기시험, 2차 시험은 교직적성 심층면접, 수업능력 평가 등을 시행하였다. 90년대에는 전공과목을 객관식으로 시행하였으나, 90년대 후반부터 2008년도까지 전공과목이 주관식(서술형)시험으로 진행되었다(유정은, 2015).

두 번째 시기인 2009년~2013년의 시험 제도는 첫 번째 시기와 다른 유형이다. 2차시 시험에서 3차시 시험 체계로 바뀌었다. 1차 시험은 똑같이 교육학과 전공 필기시험을 보았으나 객관식이었으며, 2차 시험에서 전공 논술 필기시험을 시행하였다. 3차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교직적성 면접 및 수업 평가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기인 2014년~2017년도이다. 2014년도부터 새롭게 제도가 바뀌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전의 3차시 시험에서 다시 2차시로 바뀌었으며, 1차 시험은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의 교육학 및 전공 시험이고 2차 시험에 교직적성 심층 면접 및 수업실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세 시기로 나뉘지는 임용시험 유형의 변천을 다음 <표 4>와 같이 비교하였다.

<표 1> 임용시험 제도 변천

구분	1991~2008	2009~2013	2014~2017
임용시험 시험체계	총 <2차시> · 1차 교육학 및 전공 필기시험 · 2차 교직적성심층면접, 수업능력 평가 등	총 <3차시> · 1차 교육학 및 전공 필기시험 (객관식) · 2차 전공필기시험 (논술) · 3차 교직적성심층면접,	총 <2차시> · 1차 교육학 및 전공 필기시험 · 2차 교직적성심층면접, 수업실연 등

		수업능력 평가 등	
--	--	-----------	--

2. 자격기준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제1차 시험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이 필수 자격조건이며, 중등학교 교사는 선발 예정 표시 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 자격 소지자여야 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

또한 법령에 의거하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초·중등 교육법 제 21조 2항, 2013). 자격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정교사 자격기준(제 21조 제2항 관련) 2013.3.23 개정1)

학교별	자격	정교사(1급)
중등학교		1.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 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 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3.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4. 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정교사(2급)	
	1.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 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5.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 6.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7.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 8.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9. 제 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용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의 전형을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직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 선정기준과 교육감의 전형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처럼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한 자라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을 위해서는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매해 선발인원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표 3>, <표 4>와 같이 해가 바뀌어도 응시인원수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경향이며 경쟁률도 매우 높다. 아래 <표 3>은 경기도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과 응시자 수이며 <표 4>는 광주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과 응시자 수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3> 경기도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 선발예정 및 응시인원 수

2012	선발예정				지원자			
	일반	장애	지역	계	일반	장애	지역	계

1) 초·중등 교육법 제 21조, 2항 (2013)

공립	음악	33	2		35	413	3		416
	전체	659	43		702	12,803	106		12,909
2013									
공립	음악	20	1		21	256	2		258
	전체	838	55		893	12,081	148		12,229
2014									
공립	음악	41	3		44	307	3		310
	전체	1,085	69		1,154	10,122	108		10,230
2015									
공립	음악	53	3		56	321	6		327
	전체	956	60		1,016	9,631	118		9,749
2016									
공립	음악	71	5	0	76	463	7	0	470
	전체	1,170	76	15	1,261	11,544	132	240	11,916
2017									
공립	음악	74	5	0	79	462	7	0	469
	전체	1,157	81	15	1,253	11,834	382	120	12,336

<표 3>은 경기도지역 중등 임용시험 음악과와 전체 과목의 선발예정인원과 응시인원 수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선발예정인원이 많으면 응시인원도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2017년도에는 음악에서 74명 선발예정이었으나 462명이 지원하여 6.2: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표 4> 광주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 선발예정 및 응시인원 수

2014		선발예정			지원자		
		일반	장애	계	일반	장애	계
공립	음악	x					
	전체	124	14	138	718	11	729
2015							
공립	음악	3	0	3	28	0	28
	전체	134	9	143	1,345	10	1,355
2016							
공립	음악	2	0	2	8	0	8
	전체	77	5	82	678	7	685
2017							
공립	음악	2	0	2	19	0	19
	전체	55	3	58	505	2	507

3. 임용시험 출제원칙 및 과목

1) 출제원칙

다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시된 음악과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출제원칙의 전문이다.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평가하며,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문항을 다양한 유형의 문항으로 출제하며, 이것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출제하는 등의 총 다섯 가지의 출제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표 5> 중등교사 임용시험 출제원칙

중등교사 임용시험 출제원칙 ²⁾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 기능, 소양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3.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문제해결, 창의, 비판, 논리적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문항 유형으로 출제한다. 4. 중등학교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면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5. ‘중등교사 신규 임용 시·도 공동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표시과목별 교사 자격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참고하여 출제한다.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주요사업-국가고사-중등교사 임용시험-출제-출제원칙

2) 출제 과목

앞서 서술하였듯이 임용시험은 여러 차례 제도적으로 변화가 있었다. 때문에 2009학년부터 2017학년도 임용시험의 출제 과목 및 문항유형, 문항 수, 시험시간, 문항배점, 교시별 배점을 각 연도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9~2013학년도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약 5년 동안 출제분야, 문항유형, 문항 수, 시험시간, 문항배점, 교시별 배점이 모두 같다. 이 시기는 3차시로 시행되던 시기로, 1차와 2차가 필기시험이며 3차는 시·도 교육청에 따른 교직적성 심층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가 시행되었다. 1차는 5지 선다형의 교육학과 전공시험을 보며, 2차는 전공 논술 시험을 시행하였다.

2009~2011년도 임용시험 1차 전공과목의 출제비율은 교과교육학 30~35%, 교과내용학이 65~70%이다. 2차 전공과목은 교과교육학이 35~55%, 교과내용학이 65~45%의 비율로 출제된다. 2012~2013년도 1차 전공과목의 출제비율은 교과교육학이 25~35%이며 교과내용학이 75~65%이다. 2차 전공과목은 교과교육학이 35~55%, 교과내용학이 65~45% 비율로 출제된다.

다음 <표 6>은 출제분야에 따른 문항유형과 문항 수 그리고 시험시간 및 문항 배점 등을 자세히 정리한 것이다.

<표 6> 2009~2013학년도 임용시험 출제과목, 문항유형, 문항 수 등

	전형	출제 과목	문항 유형	문항수	시험 시간	문항 배점
2009 ~ 2013	1차	교육학	선택형 (5지선다)	40문항	70분	0.5점 (20점)
		전공	선택형 (5지선다)	40문항	120분	1.5점 2점 2.5점 (80점)
	2차	전공	논술형(I)	2문항	120분	20~30점 (50점)
			논술형(II)	2문항	120분	20~30점 (50점)
	3차	실기	시·도 교육청에 따라 다름			

3차시로 시행된 2009~2013학년도 임용시험은 차시별로 문항유형이 다르다. 1차시에는 5지선다의 선택형으로 총 80문항이 출제되었다. 교육학과 전공시험이 각각 40문항으로 같지만 시험시간은 교육학이 70분이며 전공에서 120분 주어진다.

2차시에는 전공 논술시험이 시행된다. 이는 논술형 I 과 논술형 II로 나누어 각 2문항으로 120분씩 주어진다. 논술형이기 때문에 적은 문항이지만 시간을 많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3차시는 실기 평가로 각 시·도 교육청마다 출제내용, 출제범위, 방식, 배점이 다르다.

(2) 2014~2017학년도

2014~2017학년도까지 임용시험은 총 2차시로 시행된다. 1차는 필기시험이 시행되고 2차에 교직적성 심층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 시기의 시험제도 유형은 조금씩 다르다. 출제과목과 시험시간 그리고 문항유형은 같지만 문항 수, 문항 당 배점, 교시별 배점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1교시 교육학영역에서 1문항만 출제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공 A와 전공 B 영역을 살펴보았을 때 2014년도에 전공 A가 50점 만점이고 전공 B가 30점 만점으로 총 80점에서 2015~2017학년도에는 각각 40점으로 배점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문항당 배점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2014~2017학년도 음악과 임용시험 1차 전공 A와 전공 B의 출제비율은 교과교육학이 25~35%이고 교과내용학이 65~75%의 비율로 출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연도별로 다음 <표7, 8, 9>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7> 2014학년도 임용시험 1차 출제 과목, 문항유형, 문항 수 등

	교시	출제 과목	문항 유형	문항수	시험 시간	문항 배점	교시별 배점
2014	1교시	교육학	논술형	1문항 (20점)	60분	20점	1문항 (20점)
	2교시	전공 A	기입형	15문항 (30점)	90분	2점	19~21 문항 (50점)
			서술형	4~6문항 (20점)		3~5점	
	3교시	전공 B	서술형	2~3문항 (10점)	90분	3~5점	4~5문항 (30점)
			논술형	2문항 (20점)		10점	

2014년도 임용시험 1차는 3교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1교시는 교육학, 2교시는 전공 A, 3교시는 전공 B가 출제된다. 문항유형은 전공 A가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공 B는 서술형과 논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전공 B는 서술형과 논술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전공 A에 비해 문항 수가 적다. 또한 배점이 전공 A에서 2점, 3점~5점으로 분포되어 있지만 전공 B는 서술형이 3~5점, 논술형은 10점의 배점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표 8> 2015학년도 임용시험 1차 출제 과목, 문항 유형, 문항수 등

	교시	출제 과목	문항 유형	문항수	시험 시간	문항 배점	교시별 배점
2015	1교시	교육학	논술형	1문항 (20점)	60분	20점	1문항 (20점)
	2교시	전공 A	기입형	10문항 (20점)	90분	2점	14문항 (40점)
			서술형	4문항 (20점)		5점	
	3교시	전공 B	서술형	4문항 (20점)	90분	5점	6문항 (40점)
			논술형	2문항 (20점)		10점	

2015학년도도 마찬가지로 2014학년도와 출제과목 및 문항 유형 그리고 시험 시간은 같다. 그러나 문항 수와 문항배점이 바뀌었다. 정확하게 기술 돼 있지 않던 문항의 수와 배점이 균등하게 제시되어 있었고 2014학년도에 전공 A가 50점, 전공 B가 30점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 2015년에는 40점으로 균등하게 배분된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유형의 배점도 전공 A에서 기입형은 2점, 서술형은 5점이며 전공 B에서 서술형은 똑같이 5점 배점이나 논술형에서

10점으로 배점분포도가 커짐을 알 수 있었다.

<표 9> 2016~2017학년도 임용시험 1차 시험 과목, 문항 유형, 문항 수 등

	교시	출제 과목	문항 유형	문항수	시험 시간	문항 배점	교시별 배점
2016 ~ 2017	1교시	교육학	논술형	1문항 (20점)	60분	20점	1문항 (20점)
	2교시	전공 A	기입형	8문항 (16점)	90분	2점	14문항 (40점)
			서술형	6문항 (24점)		4점	
	3교시	전공 B	서술형	5/2문항 (20/10점)	90분	4/5점	7문항 (40점)
			논술형	1문항 (10점)		10점	

2009~2017학년도 임용시험의 출제과목, 문항형식, 문항 수, 시험시간 등을 비교 분석하였을 때 결과는 문항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또한 각 유형별로 배점이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적은 문항 수와 논리적으로 기술한 답을 통해 통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14학년도부터 교육학영역이 1문항만이 출제된다는 점을 볼 수 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의 과목 중 한 과목만이 출제되는 것이 아닌 여러 과목을 연계시킨 논술형 문항이 출제된다. 아직까지 ‘교육철학 및 교육사’에서 출제된 경향이 없다. 따라서 교육학 문항을 출제하는데 있어 교직이론 과목에서 끝고루 출제되

어야 할 것이다.

4. 음악과 임용시험

1) 1차 전공음악

1차 임용시험은 출제과목마다 시험시간, 시험유형, 문항 수, 문항배점이 각각 다를 수 있다. 시험은 1교시, 2교시, 3교시로 나뉘어 실시된다. 교시별 각 과목은 1교시는 교육학, 2교시는 전공 A, 3교시는 전공 B가 시행된다. 1교시 교육학은 총 9개의 교직과목이 출제 범위이며, 2교시와 3교시는 전공과 관련된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이 출제된다. 교육부고시에 따라 출제범위 및 내용이 결정되며 다음 <표 10>은 국가시험을 대행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웹사이트에서 발췌한 출제범위 및 내용이다.

<표 10> 2017학년도 1차 임용시험 출제범위 및 내용

교시	시험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1교시	교육학	교육부 고시 제 2015-73호(2015.10.1)의 [별표 2]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에 제시된 교직이론 과목 중에서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2교시	전공 A	· 교육부 고시 제 2015-73호(2015.10.1)의 부칙 제 3조(경과조치) 10항에 근거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27호](2012.11.21.)의 [별표 3]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 교과교육학(출제비율: 25~35%):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과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까지
3교시	전공 B	· 교과내용학(출제비율: 75~65%): 교과교육학(론)을 제외한 과목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각 연도별 고시에 따라 제시된 교직이론 과목은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으로 7개의 과목으로 모두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그러나 2014년도부터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까지 같으나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의 과목이 ‘교육과정’과 ‘교육평가’로 분류되었고 ‘생활지도 및 상담’이라는 과목이 새로 추가됨을 알 수 있었다.

<표 11> 음악과 기본이수과목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음악 Music	음악교육, 음악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음악교육론, 음악(국악)교수법, 전공실기, 국악실기, 시창·청음, 국악가창지도법, 합창·합주지도법, 국악개론, 국악사, 서양음악사, 화성법, 음악분석 및 형식론, 장구반주법, 피아노반주법

<표 11>은 음악과 기본이수과목이다. 전공영역의 출제범위 및 내용도 마찬가지로 고시에 따라 정해진다. 최근 고시된 교육부 고시 제 2015-73호(2015.10.1.)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이다.

이전에 고시된 ‘음악과 기본이수과목’과 공통적인 과목은 ‘음악교육론’, ‘전공실기’, ‘국악실기’, ‘시창·청음’, ‘국악개론’, ‘국악사’, ‘서양음악사’, ‘화성법’, ‘음악

분석 및 형식론’, ‘장구반주법’, ‘피아노반주법’ 임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음악(국악)교수법’, ‘국악가창지도법’, ‘합창·합주 지도법’이 새로 추가됐음을 볼 수 있다. 새로 추가된 과목을 살펴보았을 때 ‘국악가창지도법’과 ‘합창·합주 지도법’은 이론학습이 아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도 능력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었다.

2) 2차 실기 평가

(1) 실기 평가 출제범위 및 내용

임용시험 실기평가는 2009~2013학년도 5년간은 3차시에 시행되었고 2014년~2017학년도에는 2차시에 시행되었다. 1차 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수업능력 평가(수업실연, 실기)가 시행되며, 시험 일정 및 과목은 시·도 교육청마다 다르다.

임용시험 전공음악 실기 평가는 경기도지역과 광주지역을 대상으로 분석 및 연구하였다. 실기 평가의 출제내용 및 범위는 각 지역 교육청에서 발췌된 자료이다. 따라서 1차 필기시험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2차 시험은 각 시·도 교육청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험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연구에 앞서 교직적성 심층 면접과 수업능력평가는 공식적으로 시험범위 등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제외하였고 그 외 전공음악의 실기 평가의 출제범위 및 내용을 중점으로 분석·연구하였다.

(2) 실기 평가 출제내용 및 범위

실기 평가는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2차

시험에서 음악교과는 다른 교과과목과 달리 교직적성심층면접, 교수·학습 지도 안작성, 수업실연 뿐만 아니라 실기 평가까지 실시된다. 이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노래하며 장구 치기, 노래하며 피아노 반주하기, 청음, 시창이 공통이며 기악에서 단소(소금), 리코더 중 하나 선택하게 된다. 출제는 각 시·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임용시험 응시자들은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의 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출제과목을 미리 파악해야 할 것이다.

① 경기도지역

경기도지역은 청음, 피아노, 시창, 단소, 장구를 출제내용으로 하며 내용별로 배점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청음과 시창은 창작곡으로 출제되며 피아노와 장구는 교과서에 나오는 곡 중에서 출제된다. 2013년~2014년도 실기 평가 총점은 30점이다. 그러나 2015학년도부터 장구가 추가됨에 따라 총점이 40점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자유곡 암보 연주였던 단소가 2016년부터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각 연도별 출제내용과 출제범위 그리고 평가 방식과 배점은 다음 <표 12, 13, 14>와 같다.

<표 12> 2013~ 2014학년도 경기도 지역 실기 평가

출제 내용	출제 범위	방식	배점
청음	출제위원 작곡	듣고 적기	6점
피아노	고등학교 교육과정 분석에 의한 추출된 악곡	연주(추첨)	9점
시창	출제위원 작곡	연주(추첨)	9점
단소	암보연주	초견계명창 (자유곡)	6점

<표 12>는 2013~2014학년도 경기도 지역 실기평가의 출제내용, 출제범위 및 배점을 나타낸 것이다. 청음, 피아노, 시창, 단소의 4가지 영역에서 시험이 출제된다. 먼저 시창과 청음은 출제위원이 작곡한 곡으로 실시되며 피아노는 2013~2014학년도 당시의 교과서에 수록된 곡 중에서 출제된다. 단소는 출제범위가 정해지지 않고 자유롭게 곡을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배점은 시창과 피아노가 9점, 단소와 청음이 각각 6점이다.

<표 13> 2015학년도 경기도 지역 실기 평가

출제 내용	출제 범위	방식	배점
청음	창작곡	8마디 단선율 듣고 적기	6점
피아노	‘음악과 생활’, ‘음악과 진로’ 교과서에 수록된 악곡	연주(추첨)	10점
시창	창작곡	계명창(추첨)	7점
단소	암보연주	연주(자유곡)	7점
장구치며 노래부르기	‘음악과 생활’, ‘음악과 진로’ 교과서에 수록된 악곡	장구장단치며 민요 부르기 (추첨)	10점

<표 13>은 2015학년도 경기도 지역 실기 평가의 출제내용, 출제범위 및 배점이다. 총 5개의 영역에서 출제되었으며 2014학년도와 시창, 청음, 피아노, 단소까지 출제내용이 같지만 2015학년부터 ‘장구 치며 노래 부르기’가 추가되었다.

2013~2014학년도에는 30점 만점으로 하여 총 4개의 영역에서 출제되었으나

2015학년도에는 ‘장구 치며 노래 부르기’가 추가됨으로서 총 40점 만점으로 바뀌었다. 장구 치며 노래 부르기는 피아노와 같이 10점으로 가장 높은 배점이며, 9점 배점이었던 청음이 6점으로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4> 2016~2017학년도 경기도 지역 실기 평가

출제 내용	출제 범위	방식	배점
청음	창작곡	8마디 단선율 듣고 적기	6점
피아노	‘음악과 생활’, ‘음악과 진로’ 교과서에 수록된 악곡	연주(추첨)	10점
시창	창작곡	계명창(추첨)	7점
단소	창작곡	연주(추첨)	7점
장구 치며 노래 부르기	‘음악과 생활’, ‘음악과 진로’ 교과서에 수록된 악곡	장구장단치며 민요부르기 (추첨)	10점

<표 14>는 2016~2017학년도 경기도 지역 실기 평가의 출제내용, 출제범위 및 배점이다. 2015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청음, 피아노, 시창, 단소, 장구 치며 노래 부르기의 5개 영역에서 출제되었다. 출제 범위 및 내용 그리고 배점은 그 전과 같다. 그러나 단소의 출제범위 및 내용이 2015학년도에는 응시자가 자유롭게 곡을 선택하여 암보로 연주하는 시험방식이었지만, 2016학년도에는 창작곡으로 그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곡을 연주하는 것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었다.

② 광주지역

광주지역은 청음, 시창, 가창, 범주범창, 국악이 실기 평가 대상이다. 경기도 지역과 다른 점은 기악이 제외되고 가창이 포함되었다. 가창은 반주에 맞춰 한 국가곡을 부르며 외국가곡 경우 우리말 가사로 부른다. 총점은 30점으로 경기 지역에 비해 10점이 낮다. 2014년도에는 음악교과는 선발하지 않았다.

<표 15> 2015~2017학년도 광주지역 실기 평가

출제 내용	출제 범위	방식	배점
청음	창작곡	2마디씩 총 15마디 (마디별 채점)	6점
시창	창작곡 4곡	2곡 추첨 후 1곡 선택하여 무반주 초견 시창	6점
가창	중·고교 교과서 수준의 4곡	2곡 추첨 후 1곡 선택하여 가창 (외국가곡은 우리말 가사로 가창)	4점
범주범창	중·고교 교과서 수준의 4곡	2곡 추첨 후 1곡 선택하여 초견으로 반주하며 가창 (한국가곡, 외국가곡)	8점
국악	중·고교 교과서 수준의 4곡	2곡 추첨 후 1곡 선택하여 장구장단을 치며 민요창 (세마치, 굿거리, 중모리 장단 중)	6점

<표 15>는 2015~2017학년도 광주지역 실기평가의 출제 내용 및 범위이다. 청음과 시창은 경기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창작곡으로 출제된다. 청음에서 경기도지역은 8마디의 단선율을 들려주고 평가를 하지만 광주지역은 총 15마디를 들려주며 평가는 마디별로 점수가 부여된다. 또한 경기도지역에서 가창시험이 장구 치며 노래하기에서만 시행되는 반면에 광주지역은 범주범창, 국악의 평가 영역에서 출제될 뿐만 아니라 가창이라는 출제내용이 따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노래 부르기'라는 출제 내용이 총 3개의 평가영역에서 실시된다는 점을 찾을 수 있었다. 광주지역을 응시하는 자는 실기평가에서 피아노, 장구의 기악부분 뿐만 아니라 가창시험을 철저히 준비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광주지역은 2014학년도에는 음악교과를 선발하지 않았다.

Ⅲ. 음악과 임용시험 1차 전공음악 문항 분석: 2014-2017학년도를 중심으로

앞서 서술하였듯이 임용시험은 각 시기별로 제도적으로 변화가 있었고 본 논문은 2014년부터 2017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전공음악 출제 문항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2014~2017학년도 임용시험은 총 2차시로, 1차가 필기시험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공 A와 전공 B로 나누어 분석 및 정리하였다.

각 문항들은 평가영역이 한 가지로만 구성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교과능력평가를 위해 문항이 2개 또는 3개의 평가영역으로 구성 및 중복된다. 따라서 하나의 영역을 독립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닌, 모든 과목을 연계시켜 구상하고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함을 알 수 있다.

1.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요소

본 절에서는 2009학년도부터 2017학년도 임용시험 1차 전공음악에 출제된 90문항을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요소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문항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는 선행논문과 음악 전공 도서를 참고하였다. 또한 문항 내용에 따라 서양음악 전공자, 국악 전공자의 자문을 분석하는데 참고하였다. 분석을 위한 각 과목별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 요소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제시한 틀을 참고하였으며 평가요소별 평가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문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임용시험 전공음악의 출제 문항과 관련된 논문 및 음악 전공 도서의 연구를 토대로 한 본 연구자 고유의 평가내용 요소 또한 분석의 기준으로 추가하였다. 국악은 대부분 악곡중심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악곡위주의 분석을 따로 제시하였다.

문항을 분석하는데 있어 각 영역별로 전공 A와 전공 B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2014~2015학년도 문항은 기입형과 서술형이 분류되어 있어 번호가 중복 될 수 있으므로 번호 옆에 문항유형을 같이 표기하였다.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평가내용요소의 출제 경향

먼저 2014~2017학년도 임용시험 1차 전공음악에 출제된 문항을 분석하여 도출된 출제 경향은 다음 <표 16, 17>과 같다.

<표 16> 전공음악 평가내용요소의 4년간 출제 빈도: 전공 A

기본 이수과목 및 분야	평가 영역	평가내용 요소	4년간 출제 빈도(%)
음악교육론	4개 영역	9개 요소	17회(21.5%)
화성법	4개 영역	6개 요소	12회(15.1%)
대위법	1개 영역	1개 요소	1회(1.2%)
음악분석 및 형식론	3개 영역	4개 요소	4회(5%)
서양음악사	2개 영역	7개 요소	10회(12.6%)
국악개론	3개 영역	5개 요소	10회(12.6%)
국악곡	1개 영역	11개 요소	14회(17.7%)
국악실기	2개 영역	2개 요소	6회(7.5%)
합창·합주법	1개 영역	2개 요소	3회(3.7%)
국악사	2개 영역	2개 요소	4회(5%)
장구반주법	1개 영역	2개 요소	3회(3.7%)
피아노 반주법	2개 영역	2개 요소	4회(5%)
계	27개 영역	49개 요소	79회(100%)

<표 17> 전공음악 평가내용요소의 4년간 출제 빈도: 전공 B

기본 이수과목 및 분야	평가 영역	평가내용 요소	4년간 출제 빈도(%)
음악교육론	4개 영역	10개 요소	11회(25%)
화성법	2개 영역	2개 요소	2회(4.5%)
음악분석 및 형식론	1개 영역	2개 요소	2회(4.5%)
서양음악사	1개 영역	7개 요소	6회(13.6%)
국악개론	3개 영역	7개 요소	6회(13.6%)
국악곡	1개 영역	8개 요소	10회(22.7%)
국악실기	2개 영역	2개 요소	2회(4.5%)
국악사	2개 영역	2개 요소	3회(6.8%)
장구반주법	2개 영역	2개 요소	2회(4.5%)
계	19개 영역	42개 요소	44회(100%)

평가영역은 각 과목에서 크게 구분 지을 수 있는 내용을 말하여, 평가내용요소는 평가영역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을 말한다.

먼저 전공 A의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요소는 다음과 같다.

‘음악교육론’은 ‘음악교육 철학’, ‘음악과 교육과정’, ‘음악 교수법’, ‘음악과 평가’의 4개의 영역과 교육철학과 음악교육, 미학적 관점과 음악교육, 현대의 음악교육철학, 음악과 교육과정의 변천,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2015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교수법, 평가 도구 및 방법의 총 9개의 평가 내용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화성법’은 ‘화음’, ‘중지법’, ‘비화성음’, ‘전조’의 4개의 영역과 동형진행, 변화 화음 및 부속화음을 포함한 반음계적 화음, 화음분석, 성부의 진행, 정격중지·반 중지·허위중지, 화음 밖의 음의 분석 및 명칭, 전조의 이해 및 악곡에서의 전조 과정 분석의 총 7개의 평가내용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대위법’은 ‘악곡분석’의 1개의 평가영역과 푸가의 분석의 1개의 평가내용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음악분석 및 형식론’은 ‘악곡형식’, ‘호모포니·폴리포니양식’, ‘연주형태’의 3개

의 평가영역과 론도형식·소나타형식, 양식의 특징과 작품에서의 쓰임새, 포부르동·발라타, 오페라·오라토리오의 총 4개의 평가내용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서양음악사’는 ‘시대별 음악양식’, ‘작곡가와 작품’의 2개의 평가영역과 고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20세기 음악, 주요 작곡가들과 이들 작품이 음악사에 끼친 영향의 총 8개의 평가내용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국악개론’은 ‘국악이론’, ‘악곡’, ‘악기’의 3개의 평가영역과 기보법·고악보, 시김새·조·형식, 연주형태, 악곡의 특징 및 갈래, 특징 및 분류의 총 5개의 평가내용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국악실기’는 ‘성악’과 ‘기악’의 2개의 평가영역과 성악곡 연주, 선율악기 및 타악기 연주 및 방법의 총 2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합창·합주지도법’은 ‘음악해석’의 1개의 평가영역과 악기의 이해, 총보 독해력, 빠르기과 다양한 다이내믹스의 표현의 총 3개의 평가내용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국악사’는 ‘음악양식’, ‘인물사’의 2개의 평가영역과 시대별 음악 양식이해와 감상, 인물 중심의 음악사 이해의 총 2개의 평가내용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장구반주법’은 ‘연주법’, ‘반주법의 적용’의 2개의 평가영역과 주법 및 장단, 한 배와 장단의 세에 알맞은 연주, 사설 붙임새에 알맞은 기본형과 변화형 연주의 총 3개의 평가내용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피아노 반주법’은 ‘반주형태’, ‘건반화성’의 2개의 평가영역과 리듬 형태에 따른 반주법, 화성 진행의 총 2개의 평가내용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국악곡’은 ‘악곡’의 평가영역과 종묘제례악, 가곡, 산조, 여민락, 영산회상, 취타풍류, 아리랑, 춘향가, 휘모리 잡가, 풍물놀이, 범패의 총 11개의 평가내용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 전공 B의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요소는 다음과 같다.

‘음악교육론’은 ‘음악교육 철학’, ‘음악과 교육과정’, ‘음악 교수법’, ‘음악과 평가’의 4개의 영역과 교육철학과 음악교육, 미학적 관점과 음악교육, 현대의 음악교육철학, 음악과 교육과정의 변천,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2009 개정 음

악과 교육과정, 2015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교수법, 음악교육심리, 평가 도구 및 방법의 총 10개의 평가내용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화성법’은 ‘화음’, ‘중지법’의 2개의 영역과 화음분석, 정격중지·반중지·허위중지 및 변격중지의 총 2개의 평가내용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음악분석 및 형식론’은 ‘악곡형식’의 1개의 평가영역과 동기·2부분형식·짜임새, 론도형식·소나타형식의 총 2개의 평가내용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서양음악사’는 ‘시대별 음악양식’의 1개의 영역과 고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20세기 음악의 총 7개의 평가내용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국악개론’은 ‘국악이론’, ‘악곡’, ‘악기’의 3개의 평가영역과 정간보·고악보, 시김새·조·형식, 악기편성의 총 3개의 평가내용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장구반주법’은 ‘연주법’, ‘반주법의 적용’의 2개의 평가영역과 주법 및 장단, 사설 붙임새에 알맞은 기본형과 변화형 연주의 총 2개의 평가내용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국악사’는 ‘음악양식’, ‘인물사’의 2개의 평가영역과 시대별 음악 양식이해와 감상, 인물 중심의 음악사 이해의 총 2개의 평가내용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국악실기’는 ‘성악’과 ‘기악’의 2개의 평가영역과 성악곡 연주, 선율악기 및 타악기 연주 및 방법의 총 2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국악곡’은 ‘악곡’의 평가영역과 수제천, 가곡, 여민락, 산조, 새타령·창부타령·강원도아리랑, 취타풍류·고취악, 심청가·흥부가, 동동의 총 8개의 평가내용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3. 전공 A 출제 경향 분석

2014~2017학년도 음악과 임용시험 전공 A는 총 63문항이다. 그 중 교과교육학 음악교육론 관련 문항은 총 13문항이며, 교과내용학 중 서양음악 관련 문항은 총 25문항, 국악 관련 문항은 총 25문항이다.

각 문항은 하나의 뚜렷한 평가내용요소를 포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평가내용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문항 안에 평가내용요소가 중복되어 복합적인 문항형태를 이루고 있을 수 있다.

(1) 음악교육론의 평가내용요소별 출제 경향 분석

음악교육론은 4개의 평가영역과 9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4년간 전공 A에서 17회 출제되었다.

음악교육론 평가영역에서 ‘음악과 교육과정’이 8문항으로 출제빈도가 가장 높았다. 각 연도별 교육과정에 맞는 문항이 매년 출제됨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은 ‘음악교육철학’이 6회 출제되었다. 음악교육미학의 ‘관련주의’, ‘실용주의’, 리머의 ‘경험중심 음악교육철학’, 철학자 아도르노(T. Adorno)의 주장을 토대로 리머의 ‘경험중심 음악교육철학’이 출제되었다. 따라서 리머의 교육철학이 4년간 2회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음악교수법’은 2문항으로 고든과 코다이 교수법에 관한 문항이 출제되었다. 마지막으로 ‘음악과 평가’ 영역에서는 단독문항이 아닌 음악과 교육과정과 연계된 문항이 출제되었다.

음악교육론의 평가영역에서 ‘음악과 교육과정’이 매년 출제되고 있으며 나머지 3개의 평가영역 인 음악교육철학, 음악교수법, 음악과 평가에서도 1문제씩은 꼭 출제되었다.

<표 18> 음악교육론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A)

평가영역	평가내용 요소	출제 학년도별 문항 번호				4년간 출제 횟수 (%)
		14	15	16	17	
음악교육 철학	교육 철학과 음악교육	1 (서술) 1 (기입)			11	3
	미학적 관점과 음악교육	5 (기입)			11	2
	현대의 음악교육철학			5		1
계		3		1	2	6(7.5%)
음악과 교육과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변천		2 (기입)			1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2 (기입)				1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2, 4 (기입)	1 (기입) 2 (서술)	1		5
	2015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1	1
계		3	3	1	1	8(10.1%)
음악 교수법	교수법	3 (기입)	1 (서술)			2
계		1	1			2(2.5%)
음악과 평가	평가 도구 및 방법				1	1
계					1	1(1.2%)
총계		7	4	2	4	17(21.5%)

(2) 화성법의 평가내용요소별 출제 경향 분석

화성법은 4개의 평가영역과 6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4년간 12회 출제되었다.

화성법은 평가영역에서 ‘화음’이 8문항으로 출제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비화성음’ 영역에서 3문항이 출제되었다. ‘전조(조바꿈)’에서는 2문항 출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중지법’ 영역에서 1문항이 출제되었다.

‘화음’에서 악보를 제시하고 동형진행의 패턴을 파악하는 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오케스트라 총보를 이용하여 화음을 분석하는 문항이 자주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다. 때문에 화음을 분석하기에 앞서 각 악기의 기본적인 이해가 밑바탕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부속화음과 반음계적의 화음에 관한 문항도 출제되었으며, 조성과 종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악보를 제시하고 단지 기능적인 부분만을 기입하는 것이 아닌 조성, 종지, 전조, 화음의 기능변화를 통틀어 서술하는 서술형 문항도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비화성음’은 최근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다. 비화성음의 명칭과 역할을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할 것이다.

화성법의 평가영역 중 ‘화음’에서 매년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며 나머지 평가영역에서 1문항은 꼭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음악교육론과 더불어 화성법은 필수적으로 학습이 필요한 과목이다.

<표 19> 화성법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A)

평가영역	평가내용 요소	출제 학년도별 문항 번호				4년간 출제 횟수 (%)
		14	15	16	17	
화음	동형진행		3 (기입)			1
	변화화음 및			14	4	2

	부속화음을 포함한 반음계적 화음					
	화음 분석	6,7 (기입)	4 (기입)			3
	성부의 진행		5 (기입)			1
계		2	3	1	1	7(8.8%)
비화성음	화음 밖의 음의 분석 및 명칭			3	4, 12	3
계				1	2	3(3.7%)
전조 (조바꿈) 및 종지법	전조의 이해 및 악곡에서의 전조 과정 분석/ 정격종지, 반 종지, 허위종지 및 변격종지의 분석	3 (서술)	3 (서술)			2
계		1	1			2(2.5%)
총계		3	4	2	3	12(15.1%)

(3) 대위법의 평가내용요소별 출제 경향 분석

대위법은 2014년도에 ‘각기 다른 푸가(fuga)의 악보를 보여주고 공통으로 들어갈 기법의 명칭을 쓰는’ 1문항만이 출제되었다.

그 이유는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이 교육부고시 제 2015-73호(2015.10.1.)에 따라 기본이수과목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대위법에서 문항을 출제되지 않았지만, 푸가 악곡을 활용한 문항은 이후에 1문항 출제됨을 알 수 있었다.

<표 20> 대위법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A)

평가 영역	평가내용 요소	출제 학년도별 문항 번호				4년간 출제 횟수 (%)
		14	15	16	17	
악곡분석	푸가의 분석	8 (기입)				1
계		1				1(1.2%)

(4) 음악분석 및 형식론의 평가내용요소별 출제 경향 분석

음악분석 및 형식론은 3개의 평가영역과 4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4년간 4회 출제되었다.

평가영역 ‘양식의 특징과 작품에서의 쓰임새’에서 3문항이 출제되었으며 그 다음 ‘악곡형식’에서 각 1문항씩 출제되었다. ‘악곡형식’에서는 2부분, 3부분 형식은 출제되지 않았으며 론도형식과 소나타 형식에서 1문항이 출제되었다.

하이든(F. J. Haydn)의 피아노 소나타 No.37-3의 악보를 제시하고 악곡의 형식 및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음악분석 및 형식론은 매년 1문항씩 출제되고는 있었으나 다른 과목에 비해 출제빈도가 높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평가내용요소가 매년 다른 것으로 보아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 출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1> 음악분석 및 형식론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A)

평가영역	평가내용 요소	출제 학년도별 문항 번호				4년간 출제 횟수 (%)
		14	15	16	17	
악곡형식	론도 형식, 소나타 형식			9		1

계				1		1(1.2%)
양식의 특징과 작품에서의 쓰임새	호모포니, 폴리포니양식		6 (기업)			1
	발라타, 디스칸트			7		1
	오페라, 오라토리오	5 (서술)				1
계		1	1	1		3
총계		1	1	2		4(5%)

(5) 서양음악사의 평가내용요소별 출제 경향 분석

서양음악사는 2개의 평가영역과 8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4년간 11회 출제되었다.

서양음악사 평가영역에서 ‘시대별 음악양식’이 총 10문항으로 출제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작곡가와 작품’에서는 20세기 음악가 스트라빈스키(I. Stravinsky)가 다른 지역의 작곡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신고전주의 음악적 사조를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서양음악사는 4년간 매년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중세’에서 1문항, ‘르네상스’에서 2문항, ‘바로크’에서 3문항, ‘고전’과 ‘낭만’에서 각각 1문항 그리고 ‘20세기’에서 2문항이 출제되었다. 한편 ‘고대’에서는 4년간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전공 B에서 ‘고대’에 관한 문항이 첫 출제되어있음을 전공 B ‘서양음악사’의 분석 결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표 22> 서양음악사의 4년간 출제경향 (전공 A)

평가 영역	평가내용 요소	출제 학년도별 문항 번호				4년간 출제 횟수 (%)
		14	15	16	17	
시대별 음악양식	고대					
	중세			7		1
	르네상스		6 (기입)		9	2
	바로크	5 (서술)		9	9	3
	고전	3 (기입)				1
	낭만	9 (기입)				1
	20세기 음악				6, 10	2
계		3	1	2	4	10 (12.6%)
작곡가와 작품	주요 작곡가들과 이들 작품이 음악사에 끼친 영향					
계						
총계		3	1	2	5	10 (12.6%)

(6) 국악개론의 평가내용요소별 출제 경향 분석

국악개론은 3개의 평가영역과 5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4년간 16문항의 비중으로 출제되었다.

국악개론 평가영역에서 ‘국악이론’이 총 10문항으로 출제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악곡’에서 3문항, ‘악기’에서 3문항 출제되었다.

국악개론은 정간보 또는 고 악보를 제시하고 기본적인 이론뿐만 아니라, 악곡명, 장구장단, 연주형태 등 여러 요소를 한 문항 속에 포함한 것들이 많았다. 따라서 하나의 평가내용요소만을 포함한 문항도 있었지만 여러 평가내용요소를 포함한 문항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악곡을 중점으로 하여 출제한 문항들이 많이 있었다. 때문에 국악 관련 문항은 악곡 별로 세분화하여 <표 26>에서 자세히 분류하였다.

<표 23> 국악개론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A)

평가 영역	평가 내용 요소	출제 학년도별 문항 번호				4년간 출제 횟수 (%)
		14	15	16	17	
국악이론	기보법, 고악보	12 (기입) 15 (기입) 4 (서술)	4 (서술) 10 (기입)		8	6
	시김새·조·형식				3	1
	연주형태					
계		3	2		2	7(8.8%)
악곡	악곡의 특징 및 갈래				7	1
악기	특징 및 분류			8, 10		2
계				2	1	3(3.7%)

총계		3	2	2	3	10(12.6%)
----	--	---	---	---	---	-----------

살펴본바와 같이 국악개론은 3개의 평가영역 국악이론, 악곡, 악기로 나뉜다. 문항자체에 악곡에 대한 평가내용요소가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국악을 학습할 때 과목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곡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생각으로 악곡부분을 좀 더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국악곡은 아악의 ‘종묘제례악’, 정악의 ‘가곡’, 민속악의 ‘산조’, 당악의 ‘여민락’, 향악의 ‘영산회상’, 군대음악의 ‘취타풍류 및 고취악’, 민요의 ‘아리랑’, 판소리의 ‘춘향가’, 잡가의 ‘휘모리잡가’, ‘농악’, ‘풍물놀이’ 등 다양한 악곡에서 문항이 출제되었다.

<표 24> 국악 곡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A)

평가영역	평가 내용요소	출제 학년도별 문항 번호				4년간 출제 횟수 (%)	
		14	15	16	17		
악곡	아악	종묘제례악		8 (기입)	10		2
	정악	가곡	13 (기입)	9 (기입)		8	3
	민속악	산조			2		1
	당악	여민락					1
	향악	영산회상	14 (기입)	4 (서술)			2
	군대 음악	취타풍류, 고취악			6		1
	민요	아리랑	2 (서술)				1
	판소리	춘향가			13		1
	잡가	휘모리 잡가		7 (기입)			1
	농악	풍물놀이			4		1
	범패		6 (서술)				1

총계			5	4	5	1	14 (17.7%)
----	--	--	---	---	---	---	---------------

(7) 국악 실기의 4년간 출제 경향

국악 실기는 2개의 평가영역과 2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4년간 7문항 비중으로 출제되었다. ‘성악곡’이 2문항 출제되었으며, ‘기악’에서는 농악 및 종묘제례악 등 악기 연주 및 방법과 관련된 문항이 5문항 출제되었다. 또한 성악 및 기악 실기를 위해 제시된 악곡의 악기편성을 서술하는 문항이 매해 출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거의 모든 문항이 악곡을 중점으로 하여 출제됨을 볼 수 있었다. 국악 실기는 실기영역을 평가하는 것으로 악기의 연주방법 또는 성악곡의 연주방법을 비롯하여 곡의 연주형태, 악기편성을 서술하는 문항이 자주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25> 국악 실기의 4년간 출제경향 (전공 A)

평가 영역	평가내용 요소	출제 학년도별 문항 번호				4년간 출제 횟수 (%)
		14	15	16	17	
성악	성악곡 연주		9 (기입)	13		2
계			1	1		2(2.5%)
기악	연주 및 연주방법	14 (기입)		4, 12	14	4
계		1		2	1	4(5%)
총계		1	1	3	1	6(7.5%)

(8) 합창·합주지도법의 4년간 출제 경향

합창·합주지도법은 1개의 평가영역과 2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4년간 3문항 비중으로 출제되었다.

평가영역 ‘음악해석’은 ‘악기의 이해’, ‘총보 독해력’, ‘빠르기와 다양한 다이내믹스의 표현’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 되어 있다. 악기의 이해는 앞서 화성법의 4년간 출제 경향에서 서술하였듯이 오케스트라 총보 악보를 활용하여 각 악기별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항이 출제되었다. 따라서 합창·합주를 위해 음악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악기의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함을 볼 수 있다.

합창·합주지도법 평가영역은 매년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특히 합주 악기들의 특징을 알아야 서술할 수 있는 문항을 중점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시대별 악곡들을 제시하고 합주를 위한 지도법을 묻는 문항이 매년 출제 되고 있다.

2014년도에는 리코더에 관한 문항 그리고 2015~2017년도에는 관악 합주 또는 오케스트라 수업을 위한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표 26> 합창·합주지도법의 4년간 출제경향 (전공 A)

평가 영역	평가내용 요소	출제 학년도별 문항 번호				4년간 출제 횟수 (%)
		14	15	16	17	
음악 해석	악기의 이해 및 빠르기와 다양한 다이내믹스의 표현	10 (기입)		14	12	3(3.7%)
	총보 독해력					
총계		1	1	1	2	3(3.7%)

(9) 국악사의 평가내용요소별 출제 경향 분석

국악사는 2개의 평가영역과 2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4년간 3 문항이 출제되었다. 평가영역 ‘음악양식’에서 ‘시대별 음악 양식 이해와 감상’이 2문항 출제되었으며 ‘인물 중심의 음악사 이해’가 1문항 출제되었다. 특히 국악사에서는 시대별 다양한 고악보를 제시하고 각 악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율명을 묻는 문항이나 기보법의 원리를 서술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이는 이론지식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및 고악보와 문항을 연계시켜 통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비중 있게 출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27> 국악사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A)

평가 영역	평가내용 요소	출제 학년도별 문항 번호				4년간 출제 횟수 (%)
		14	15	16	17	
음악 양식	시대별 음악 양식 이해와 감상			6	2	2
계				1	1	2(2.5%)
인물사	인물 중심의 음악사 이해		10 (기입)		5	2
계			1		1	2(2.5%)
총계			1	1	2	4(5%)

(10) 장구반주법의 평가내용요소별 출제 경향 분석

장구반주법은 2개의 평가영역과 2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4년간 3문항이 출제되었다. 평가영역 ‘장구 장단’에서 1문항, ‘반주법의 적용’에서 1 문항이 출제되었다. 장구반주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장구반주법을 중심으로 한 문항이 아닌 다른 과목과 연계되어 문항이 출제됨을 볼 수 있다. 때문에 악곡을 분석하는 데 있어 장구장단 반주 법을 연구하

는 것은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8> 장구반주법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A)

평가영역	평가내용 요소	출제 학년도별 문항 번호				4년간 출제 횟수 (%)
		14	15	16	17	
장구 장단	악곡에 알맞은 연주	13 (기입)			3	2
	악곡에 알맞은 장단 순서			2		1
계		1		1	1	3(3.7%)
총계		1		1	1	3(3.7%)

(11) 피아노반주법의 평가내용요소별 출제 경향 분석

피아노반주법은 2개의 평가영역과 2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4년간 4문항 비중으로 출제되었다. 평가영역 ‘반주형태’에서 1문항 출제되었으며 ‘건반화성’에서는 3문항이 출제되었다.

피아노반주법은 매년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반주형태’에서 20세기 음악 스윙 재즈에 관한 문항이 출제되었으며 ‘건반화성’에서 ‘화성진행’이 화성법과 연계되어 꾸준히 출제되고 있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피아노 반주법을 위한 화음명칭이 아닌 반주의 코드를 서술하는 문항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다.

<표 29> 피아노반주법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A)

평가영역	평가내용 요소	출제 학년도별 문항 번호				4년간 출제 횟수
		14	15	16	17	

						(%)
반주형태	리듬 형태에 따른 반주법				6	1
계					1	1(1.2%)
건반화성	화성 진행	11 (기입)	5 (기입)	11		3
계		1	1	1		3(3.7%)
총계		1	1	1		4(5%)

4. 전공 B 출제 경향 분석

2014~2017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전공음악 1차 전공 B 영역은 총 27문항이다. 그 중 교과교육학 인 음악교육론 관련 문항은 총 6문항이며, 교과내용학 중 서양음악 관련 문항은 총 11문항, 국악 관련 문항은 총 12문항이다. 전공 A와 마찬가지로, 문항이 여러 가지의 평가내용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평가영역별 중복이 있을 수 있다.

전공 B는 전공 A와 비교했을 때 문항 유형이 서술 및 논술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논리적이고 사고력 있는 답을 요구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전공 A에 비해 문항 수는 적지만 총점 및 시험시간은 동등하다. 그러나 각 문항별 배점이 전공 A보다 높고 문항 수가 적기 때문에 과목 별 분포도가 넓지 않다.

(1) 음악교육론의 평가내용요소별 출제 경향 분석

음악교육론은 4개의 평가영역과 10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4년간 11문항이 출제되었다.

‘음악교육철학’이 4문항으로 출제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음악과 교육과정’이 3문항 비중으로 출제되었다. ‘음악 교수법’은 2문항 출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음악과 평가’ 영역에서는 평정척도 법에 관한 문항이 출제되었다.

음악교육론은 서술보다 논술형 문항이 주로 출제되었으며, ‘음악교육철학’에서 매년 꾸준히 1문항씩 출제되고 있다. 음악과 교육과정, 음악교수법, 음악과 평가에서 1문항씩은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다.

<표 30> 음악교육론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B)

평가영역	평가 내용 요소	출제 학년도별 문항 번호				4년간 출제 횟수 (%)
		14	15	16	17	
음악교육 철학	교육 철학과 음악교육		1 (논술)		8	2
	미학적 관점과 음악교육		1 (논술)			1
	현대의 음악교육철학	1 (논술)		8		2
계		1	2	1	1	5(11.3%)
음악과 교육과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변천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1 (논술)	2 (논술)			2
	2015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1	1
계		1	1		1	3(13.6%)
음악 교수법	교수법			7		1
	음악교육심리				1	1
계				1	1	2(4.5%)
음악과 평가	평가 도구 및 방법			6		1
계				1		1(2.2%)
총계		2	3	3	3	11(25%)

(2) 화성법의 평가내용요소별 출제 경향 분석

화성법은 2개의 평가영역과 2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4년간 2 문항 출제되었다. 평가영역 ‘화음’에서 바흐(J. S. Bach)의 푸가(fuga) 악보를 제시하고 이를 화음 분석하고 불협화 음정의 해결과정을 서술하는 문항이 출제되었으며 2016학년도에는 ‘중지법’에서 1문항이 출제되었다. 화성법은 전공 A에서 다 수 출제되었으므로 전공 B 영역에서는 중지의 기능을 서술하는 문항만 출제되었다.

<표 31> 화성법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B)

평가영역	평가내용 요소	출제 학년도별 문항 번호				4년간 출제 횟수 (%)
		14	15	16	17	
화음	화음 분석		2 (서술)			1
계			1			1(2.2%)
중지법	정격중지, 반 중지, 허위중지 및 변격중지의 분석			1		1
계				1		1(2.2%)
총계			1	1		2(4.5%)

(3) 음악분석 및 형식론의 평가내용요소별 출제 경향 분석

음악분석 및 형식론은 2개의 평가영역과 2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영역 ‘악곡형식’에서 동기 및 2부분형식이 출제되었으며, 베토벤(L. V. Beethoven) 소나타 No.3, 1악장의 ‘제시부’ 악보를 제시하고 악곡을 분석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이처럼 음악분석 및 형식론은 서양음악사의 이해와 같이 함께 혼합되어 출제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는 창작곡을 제시하고 형식을 분석하는 문항도 출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2> 음악분석 및 형식론의 4년간 출제경향 (전공 B)

평가영역	평가내용 요소	출제 학년도별 문항 번호				4년간 출제 횟수 (%)
		14	15	16	17	
악곡형식	동기, 2부분형식, 짜임새			2		1
	론도 형식, 소나타 형식				2	1
총계				1	1	2(4.5%)

(4) 서양음악사의 평가내용요소별 출제 경향 분석

서양음악사는 1개의 평가영역과 7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4년간 6문항 출제되었다.

서양음악사도 매년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중세’에서 1문항, ‘르네상스’에서 1문항, ‘고전’에서 1문항 그리고 ‘20세기’에서 2문항 출제되었다. 또한 ‘고대’에서 2017학년도에 처음으로 그레고리오 성가의 선법에 대한 1문항이 출제되었다. 서양음악사는 대부분 악보를 제시하고 각 시대별 음악양식에 해당하는 작곡가와 악곡명을 서술하는 문항, 작곡 기법을 서술하는 문항 또는 각 시대에 맞는 음악

적 사조를 서술하는 문항 위주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3> 서양음악사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B)

평가 영역	평가내용 요소	출제 학년도별 문항 번호				4년간 출제 횟수 (%)
		14	15	16	17	
시대별 음악양식	고대				6	1
	중세	2 (서술)				1
	르네상스	1 (서술)				1
	바로크					
	고전				2	1
	낭만					
	20세기 음악		1 (서술)	4		2
총계		2	1	1	2	6(12.2%)

(5) 국악개론의 평가내용요소별 출제 경향 분석

국악개론은 3개의 평가영역과 5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4년간 6문항 출제되었다. ‘국악이론’이 총 4문항으로 출제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악기’에서 2문항이 출제되었다.

국악개론은 정간보 또는 고악보를 제시하고 악곡명, 율명, 장구장단을 묻는 문항이 많았다. 또한 전공 B 영역이기 때문에 한 문항 안에 적어도 2~3가지의 내용을 기술하는 문항위주로 출제되는 경향이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정간보를 읽는 것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 하나의 악곡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특징들을

통합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표 34> 국악개론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B)

평가 영역	평가 내용 요소	출제 학년도별 문항 번호				4년간 출제 횟수 (%)
		14	15	16	17	
국악이론	정간보, 고악보			3, 5	7	3
	시김새·조·형식		3 (서술)			1
	연주 형태					
계			1	2	1	4(9%)
악곡	악곡의 특징 및 갈래에 따른 분류					
계						
악기	특징 및 분류					
	편성	3 (서술)			7	2
계		1			1	2(4.5%)
총계		4	1	2	4	6(13.6%)

전공 A와 마찬가지로 국악은 문항에 악곡에 대한 평가내용요소가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악곡부분을 좀 더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악을 학습할 시 과목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곡을 위주로 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본 연구자의 생각으로 이러한 분석기준을 추가하였다. 정악, 당악, 아악, 민요, 판소리, 군대음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항이 출제되고 있음을 볼 때 출제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악의 ‘수제천’, 정악의 ‘가곡’, 민속악의 ‘산조’, 민요의 ‘새타령, 창부타령, 강

원도아리랑’, ‘군대음악’, 판소리의 ‘심청가, 흥보가’, ‘동동’의 악곡이 출제되었다.

<표 35> 국악곡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B)

평가영역		평가내용 요소	출제 학년도별 문항 번호				4년간 출제 횟수 (%)
			14	15	16	17	
악곡	아악	수제천			3		1
	정악	가곡				7	1
	당악	여민락			5		1
	민속악	산조	2 (논술)			4	2
	민요	새타령/창부 타령/강원도 아리랑		2 (논술)			1
	군대 음악	취타풍류, 고취악				5	1
	판소리	심청가/ 흥보가		3 (서술)		4	2
		동동	3 (서술)				1
총계			2	2	2	4	10(22.7%)

(6) 국악 실기의 4년간 출제 경향

국악 실기는 2개의 평가영역과 2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4년간 2문항이 출제되었다. 평가영역 ‘성악’에서 우리나라 5개의 민요권 가운데 어느 권에 속하는가와 제시한 민요의 선율적 특징을 서술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기악’에서도 마찬가지로 1문항이 출제되었다. ‘기악’에서 출제된 2번 문항은 정악가야금과 산조가야금의 악보를 제시하고 연주에 필요한 악기와 각 악기의 연주법을 서술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전공 A와 마찬가지로 성악 및 기악곡의 연주방법 및 선율적 가락의 특징을 묻는 실제적으로 연주하는데 있어 필요한 요소를 서술하는 문항이 출제되는 경향이다.

<표 36> 국악 실기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B)

평가 영역	평가내용 요소	출제 학년도별 문항 번호				4년간 출제 횟수 (%)
		14	15	16	17	
성악	여러 갈래의 성악곡 연주		2 (논술)			1
기악	선율악기 및 타악기 연주	2 (논술)				1
총계		1	1			2(4.5%)

(7) 국악사의 평가내용요소별 출제 경향 분석

국악사는 2개의 평가영역과 2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4년간 3 문항이 출제되었다. ‘음악양식’에서 모두 출제되었으며 평가영역 ‘인물사’에서는 출제되지 않았다. 국악사이기 때문에 논술 및 서술형의 문항이 출제되는 전공 B 영역에서 1문항씩은 꼭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5학년도에 출제되었던 문항을 살펴보면, 조선 후기 연향에 관련된 그림을 제시하고 그 그림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음악사적 요소 등을 서술하는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다.

따라서 악곡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예술사적 자료들과 연계시켜 학습하는 것 또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표 37> 국악사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B)

평가 영역	평가내용 요소	출제 학년도별 문항 번호				4년간 출제 횟수 (%)
		14	15	16	17	
음악 양식	시대별 음악 양식 이해와 감상	2 (논술)	4 (서술)		3	3
계						
인물사	인물 중심의 음악사 이해					
총계		1	1		1	3(6.8%)

(8) 장구반주법의 평가내용요소별 출제 경향 분석

장구장단법은 2개의 평가영역과 2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4년간 2문항이 출제되었다. 악곡에 따라 반주법의 적용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판소리’, ‘아리랑’의 악곡에서 출제되었으며 악곡에 맞는 장구반주법을 서술하는 경향이다. 최근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

<표 38> 장구반주법의 4년간 출제 경향 (전공 B)

평가영역	평가내용 요소	출제 학년도별 문항 번호				4년간 출제 횟수 (%)
		14	15	16	17	
연주법	주법 및 장단					
계						

반주법의 적용	사설 붙임새에 알맞은 기본형과 변화형 연주				4, 5	2
계			1		1	2
총계			1		1	2(4.5%)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4학년도부터 2017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전공음악 출제 문항을 분석하여 출제 경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2009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임용시험 제도를 분석한 결과, 보다 수준 높은 임용시험 문항을 출제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변화를 겪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임용시험 제도는 변화했고 앞으로도 변화될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교원의 선발 및 더 나은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되어야 할 문제라 생각된다. 또한 시대가 변해도 임용시험 응시자 수가 매해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출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임용시험 출제 문항을 분석하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9학년도~2017학년도 8년간 임용시험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것을 토대로 2014~2017학년도 음악과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출제 문항을 전공 A영역과 전공 B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실기 평가는 광주광역시 지역과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014~2017학년도 음악과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출제 경향 분석기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한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요소를 참고하였으며, 또한 본 연구자만의 평가내용요소를 분석 기준으로 추가하여 연구·분석하였다.

다음은 2014~2017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전공음악의 출제 경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첫째, 출제 문항 수가 줄어들었으나 문항별 배점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교시별 배점이 동등해졌다. 이는 서술 및 논술유형의 문항을 통해 개념

과 원리뿐만 아니라 논리적이고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전공 A는 총 63문항이며 전공 B는 27문항이다. 이 중 교과교육학은 19 문항이 출제되었으며 교과내용학 중 서양음악 관련 문항은 36문항, 국악 관련 문항은 36문항 비중으로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출제 경향으로 먼저 전공 A에서 차례대로 음악교육론이 17회(21.5%), 국악곡이 14회(17.7%), 화성법이 12회(15.1%), 마지막으로 서양음악사와 국악개론이 각각 10회씩(12.6%)의 비중으로 출제되었다. 전공 B는 음악교육론이 11회(25%), 국악곡이 10회(22.7%), 서양음악사와 국악개론이 각각 6회씩(13.6%)의 비중으로 출제되었다.

넷째, 전공 A와 전공 B의 매년 출제되고 있는 문항을 분석한 결과이다.

교과교육학인 음악교육론에서 평가영역인 음악교육철학과 교육과정은 매년 1 문항씩 출제되고 있었다. 타 과목과 비교했을 때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교과내용학 중 매년 1문항씩 출제되고 있는 과목은 화성법, 서양음악사, 피아노반주법, 음악분석 및 형식론, 국악개론, 국악실기, 국악사이다. 합창·합주법과 장구반주법은 2015학년도에는 출제되지 않았다. 또한 서양음악사에서 ‘고대’와 관련된 문항이 2017학년도에 처음 출제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서양음악사의 출제범위가 고대에서 20세기까지 점점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최근 ‘국악’ 관련 출제 문항이 증가하고 있었다. 국악은 악곡을 중점으로 한 문항들이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다. 대부분의 문항이 악보를 제시하였고 또한 악곡의 전반적인 음악적 특징 등 통합적인 이론 지식을 학습해야 답을 서술할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다.

이처럼 2014년도부터 전공 A, B 영역이 서술형 및 논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항을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요소 중 한 개의 영역으로만 분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새로운 평가요소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표시과목별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요소가 연구수행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연구기관인 표시과목 관련 6개의 학회에서 개발·보완이 이루어지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음악교과에 대한 개발·보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임용시험이 2014학년도에 2차시로 제도가 변경되고 문항유형도 서술형, 논술형으로 바뀌는 것에 따라서 새로운 평가영역과 평가내용요소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최근 4년간 2014-2017학년도 임용시험 1차 전공음악의 출제문항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분석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많이 출제된 영역을 파악함으로써 본 연구가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후학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가 되길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김달성(1988). **악기론**. 서울: 세광음악.
- 김보경(2015). 2009-2015년도 음악과 중등교원임용고사 출제경향 분석.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미, 최병옥(2013). 2009~2013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음악과 문항의 출제 경향 분석. **음악교육연구**, 42(3), 71-96.
- 경기도 교육청. www.goe.go.kr, 2017년 3월 검색함.
- 교육부(2017) www.moe.go.kr, 2017년 3월 검색함.
- 광주광역시 교육청 www.gen.go.kr, 2017년 3월 검색함.
- 민경훈 외 4명(2013). **음악교육학 총론(2판)**. 서울: 학지사.
- 박미현(2016). 2012-2016 음악과 중등교사 임용시험 문항 분석.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찬미(2013). 음악과 중등교원 임용고사 경향 분석: 임용고사 출제 기준과 사범대학 교육과정의 연계성 중심으로.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백병동(2008). **화성학**. 서울: 수문당.
- 변미혜(2013). 중등 음악 임용고사 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향. **국악교육**, 36,

83-103.

유정은(2015). 음악중등교사 임용고시의 분야별 기출문항 분석. **음악교육공학**, 25, 253-283.

윤양석(1991). **음악형식론**. 서울: 세광아트.

이성천, 권덕원, 백일형, 황현정(2009). **국악개론**. 서울: 풍남.

이은혜(2007). 음악과 중등 교원 임용고사의 출제경향과 개선방안 : 2005년도 에서 2007년도 문항 중심으로.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www.kice.re.kr>, 2017년 2월 검색함.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4). 음악과 중등교사 신규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문제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 음악과 중등교사 신규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문제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6). 음악과 중등교사 신규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문제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7). 음악과 중등교사 신규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문제지.

홍인혜(2015). 중등학교 음악교사의 교사 효능감과 교사헌신 수준 분석. **음악교육연구**, 44(4), 305-330.

홍정수, 김미옥(2006). **두길 서양음악사 1, 2**. 파주: 나남.

Miller, H. M.(1989). **음악사**. 서울: 삼호.